

실적 갈린 중소 손보사… ‘車 보험’ 점유율 확보 등 과제

한화손보·흥국화재 ‘깜짝 실적’
보험금 누수 막고, 車손해율 ↓

롯데손보, 1년 만에 적자 전환
새 회계기준 대비 사업비 늘어
올해 수익성·건전성 개선 집중



롯데손해보험 | let: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중소형 손보사는 희비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개선된 실적을 거둔 곳이 있는 반면 적자를 기록한 곳도 있어서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손보사 중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롯데손해보험은 1년 만에 적자 전환을 나타냈다. 손보업계 ‘빅5’(삼성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메리츠

화재)가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과 성장률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화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021억원으로 전년 동기(1559억원) 대비 93.7% 증가했다. 같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의 당기순이익(8165억원)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한화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4.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효자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흥국화재는 전년(620억원) 대비 136.3% 상승하며 세 자릿수 성장세를 이룩했다. 당기순이익은 1465억으로 손

보업계 수익 상승 기류에 제대로 올라탔다는 평가다. 흥국화재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수익을 올렸다.

양 사가 수익성 개선을 이룬 배경에는 지난해 손보업계가 백내장, 하지정맥류 등을 중심으로 과잉진료를 적발해 보험금 누수를 막은 것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진 점 등이 있다. 차 보험 손해율 인하는 천정부지로 오른 기름값이 차량 이동을 줄인 덕분이다.

수익성 중심 보장성보험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장기위험손해율도 한 나아졌다. 한화손보와 흥국생명의

장기위험손해율은 각각 6.8%포인트(p), 8.2%p 개선됐다.

반면 롯데손보는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보의 당기순손실은 628억원으로 지난 동기(1199억원)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자 전환은 눈에 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이번 적자는 사회계기준(IFRS17)을 대비하기 위한 체질 개선의 여파다. 장기보장성보험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해 적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익 602억원을 기록하며 순항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J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들어선 이후 장기보장성 보험 신규월납 매출액을 24.7% 끌어 올렸다.

올해 롯데손보는 그간 계획했던 장기 보장성보험 영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C

SM)의 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투자가 이어졌다”며,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대형 손보사에 집중된 자동차 보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도 한 중소손보사의 숙제다. 지난 3분기 기준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상위 4곳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비중(원수보험료 기준)은 84.5%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의 점유율은 9.4%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 긴급출동 등 단순서비스와 마케팅 확대가 함께 이뤄지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한은 “유가·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둔화 더딜 것”

1월 소비자물가 5%대로 하락
물가 압력 리스크 요인 산적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도 영향



한국은행 전경.

소비자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상승 등에 따라 둔화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BOK 이슈노트 2023-7)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6.4%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1월 5%대로 낮아졌다.

다만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공공요금에 따른 파급영향 ▲기대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등이 물가 둔화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국제유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수요가 확대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

는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감산하기로 했다. 수요가 늘고 공급차질이 불확실해지면 국제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올해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에 따라 물가도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서울의 버스·지하철, 경기·인천의 택시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다.

송상윤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누적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요금인상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상폭과 시기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상승폭이 확대될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하며 재화 및 서비스 가격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송 팀장은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이 오르면 근원물가가 올라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주택용보다 산업용에서 더 크게 오른 점도 이차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이나 에너지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것들을 제외한 물가를 말한다.

근원물가는 비근원물가(농산물, 에

너지 등)의 영향을 받아 개인서비스물가를 주로 높이는데, 특히 비근원물가가 높으면 개인서비스물가로 전이가 빠르다. 농산물, 에너지 등의 인상분이 개인서비스물가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해 물가오름세 둔화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가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비용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해 실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지난 2월 기대인플레이션은 4%로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송 팀장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미국과 달리 노동시장 이외의 요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특별 프로모션 진행

카카오뱅크가 1조 5000억원 규모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특판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해당 상품 판매 기간은 3월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특판 대출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별 금리인하가 적용되면 신규대출 금리는 최저 연 3.42%로, 금융권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최저 연 3.43%, 기존 대출을 연장할 시에는 최저 금리가 연 3.39%로 적용된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금리가 최저 연 3.42%, 연장 시 대출금리도 최저 연 3.42%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전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대상자도 확대된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 주택 시세 제한 없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시세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특판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대출 탭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메뉴에서 ‘나의 한도 확인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혜택 확 늘린 ‘금쪽같은 자녀보험’ ‘암, 뇌·심’ 3대 성인질병 집중 보장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이 주력상품인 ‘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인다.

◆ 가입연령, 보장, 납입면제 등 세 가지 혜택 확대

KB손해보험은 기존 자녀보험 보다 혜택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만 30세까지였던 가입연령을 최대 만 35세까지 확대했다. 경제 활동을 시작하며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성장’ 관련 보장을 추가했다. ‘성조숙증 진단·치료’ 및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 보장을 담아 자녀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를 재구성했다.

추가로 수두, 수족구 등 9대 전염병에 대한 진단비를 탑재했다. 내향성 손발톱이나 십자인대 수술과 같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위험에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했다.

중대사고 발생 시 납입면제를 총 11개로 확대했다. 손보업계 최초로 ‘외상성 특정 뇌출혈’, ‘외상성 특정 장기손상’에 대한 납입면제도 추가했



우리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가입하는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 출시 이미지. /KB손해보험

다. 여기에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만성 당뇨 합병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시에도 납입면제를 포함한다.

한화생명도 암, 뇌, 심혈관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선보인다.

◆ 국내 주요 사망원인 집중 보장

한화생명은 3대 성인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한화생명 G1건강중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보장형’과 ‘뇌·심 보장형’으로 구성했다. 해당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1종 암 보장형은 최대 2억원, 뇌·심 보장형은 1억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먼저, 주계약 뇌·심 보장형에서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담보를 확대했다. 특정3대암보장 특약에서는 대장점막내암 진단 시 일반암 연계조건 없이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일반가입형 외에도 간편가입형을 추가했다. 질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가입 연령은 기존보다 10세 가량 높였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유병자와 고령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했다.

/김정산 기자